

정릉(貞陵)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남호현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Corresponding Author : m00nrabbit@korea.kr

국문 초록

정릉(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에 얽힌 논란은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 사이의 충돌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태조의 경처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은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태조 사후, 태종에 의해 도성 밖으로 이장되고 그곳에 남아 있던 석물들은 청계천의 광통교를 보수하는데 쓰인다. 아사에서는 태종이 강씨를 저주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능을 옮기고 남은 석물들로 광통교를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고 전한다. 태조 말년, 강씨와 태종은 대립하던 관계였으나 태조가 왕으로 옹립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치적 동반자에 가까웠다. 정릉이나 광통교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더 담백하다. 정릉의 천장은 능묘가 도성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정부의 상언을 따른 것이다.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하고 이장시켰다는 주장에는 사실 관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논자는 광통교 개수에 정릉의 석물이 재사용된 것에 대해 당시 도성 안팎에서 건축자재소요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조달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은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이질성에서 찾았다.

태조는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죽은 왕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과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신덕왕후의 권위를 위외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고자 한 노림수가 있었다.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지방군벌로 성장한 이성계는 높은 유학적 소양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호불적 성향을 띄는 구체제의 인물이었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내부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러한 모습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은 즉위 후, 주도적으로 도성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이는 '예치'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한양도성의 경관에 명확하게 구현하고자 한 의지의 발현으로 보여진다. 정릉의 이장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진행되었던 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조선, 태조, 태종, 정릉, 광통교

투고일자 2020. 09. 15 ● 심사일자 2020. 10. 16 ● 게재확정일자 2020. 11. 05





I. 머리말

구전으로 전해지는 야사가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진 특정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조선이라는 유교국가의 틀을 만든 태종 이방원은 아마 대중들의 '확증편향'이 가장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한명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강권을 휘두르며 피바람을 부르는 전제군주'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태종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태종이 계모인 신덕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무덤의 석물을 뽑아와 청계천의 광통교로 만들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는 이야기는 정사처럼 변해 버린 대표적인 야사이다. 마치 "의자와 왕과 삼천궁녀" 이야기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실증작업 없이 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왔다. 정말 그러했을까?

태종이 활약했던 여말선초는 구체제의 황혼과 새로운 국가의 여명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새로운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구체제의 우상들은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그 잔영들마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이 기득권을 획득한 신진 엘리트들은 권력의 교체기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더욱 강고히 하고 새로이 수립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남아있는 구체제의 흔적을 해체하는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은 조선 건국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작업은 대체로 태종 대에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사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본인 역시 구체제에 속한 사람이었으며 남겨진 기록에서도 진정한 '혁명가'에 부합하는 모습은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의 아들인 태종 시기부터 조선은 새로운 국가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한양도성 역시 태조 대에는 도시의 기본 골격

만이 구비되었을 뿐이고 그 기능들이 분화·완성되며 '유교국가'의 왕도로서 경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태종 대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초기 한양도성의 경관이 정비되어 가는 과정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되어 갔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도성의 경관을 구성했던 주요 상징물(Symbol)인 정릉(貞陵: 신덕왕후릉)의 이장과 광통교(廣通橋) 개수에 얽혀있는 야사를 사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조선 초기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립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 초기 한양도성의 경관조성 방향과 그 배경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도성의 경관 형성에는 다각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대의 정치·사회적인 상황과 자연지리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전자는 당시의 통치 이데올로기, 종교, 도성을 설계한 이들이 확보했던 인적자원의 특징, 정치·외교적 상황 및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겠고 후자로는 자연지형으로 설명되는 산하(山河)의 유무와 규모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개국 당시, 중국을 위시하여 동북아시아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유교였다. 자금성을 축조한 명(明)왕조는 앞선 몽골(元)왕조와 차별화를 위해 유교적 원리를 기초로 자금성을 계획했으나 사회전반에 남아 있던 불교·도교적 영향이 침습하고 계획을 벗어나는 사치가 더해지면서 유교적 모범을 만들려던 원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된다. 조선왕조의 창업자들도 전조(前朝) 고려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 유교원리를 중심에 두고 한양도성을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본래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양도성은 조선 개국 후, 고려의 왕도였던 개경에

서 천도하며 만들어진 것인데 당시의 한양은 남경¹으로 불리던 지역으로 이미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도시였다. 사실 남경으로의 천도 논의는 이미 고려 고종 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고려가 멸망하는 공양왕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문을 연 이성계와 정도전을 필두로 한 신진사대부들은 고려 말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태조는 개경을 벗어나 한양으로 천도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 하지만 유력한 신진사대부들이 천도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다른 곳을 천거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계룡산에 신도 공사까지 시작되지만 하윤 등의 반대로 중지되고 천도계획은 표류하게 된다. 하지만 태조의 의지가 확고하고 일부 관료들과 불교계의 거두였던 왕사 자초(무학) 등이 남경 천도에 동조해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결국 남은 관료들도 이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남경 천도가 확정된다(최종현 2008: 124-128).

조선은 명을 상국²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원왕조의 통치시스템과 이념보다 명의 그것을 모범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도의 구조도 명의 그것을 참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명의 자금성은 경복궁보다 25년 늦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도 구상에는 명을 중심으로 한 중화중심의 유교질서를 반영하려 했겠으나 실제 신도건설에 적용된 설계개념과 축조기술은 원(元) 대도

(大都)와 고려 개경성의 그것이 차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양도성과 경복궁, 종묘 등의 주요시설물을 조성하는데 실무를 담당했던 이들이 김사행과 박자청 같이 원에서 체재한 경험이 있고 고려 때부터 활약했던 기술 관료들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버들 외 2018: 113)³.

성리학을 통해 다스려지는 ‘예치국가’를 목표로했던 조선의 건국세력은 이러한 통치 이데올로기를 현실하는 수단으로서 ‘예제건축’ 다시말해 『주례(周禮)』의 개념을 적용하여 신도 ‘한양’의 건설을 추진한다. 『주례』 「고공기(考工記)」는 중국과 일본 역대 왕조들의 도성 건설에도 규범으로 기능했고 조선이 1396년 낙성한 한양도성에도 전범이 되었다.⁴ 도성의 서북쪽으로 정궁인 경복궁을 배치하고 좌측(동편)에는 종묘, 우측(서편)에는 사직을 건립한 뒤, 정궁의 북편에 시전을 두는데 이것은 고공기의 개념이 반영된 배치이다.^{5,6} 한양도성이 고공기보다는 고려로부터 이어온 도성건설 관습에 더 충실하게 따랐을 것이라는 견해(김동욱 2017: 28)도 있지만 고공기에 표현된 도시구성 요소들이 고려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도성구상에 미친 영향을 굳이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선 전기 한양도성의 도시골격과 주요시설물의 배치에는 예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고려되는 경향을 보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러한 경향성은 감소한다. 물론 도성이 만들어진 초창기에도 정궁의 북편에 두었던

1 『태조실록』에는 조선 건국 후, 태조가 한양 일대를 답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남경’이란 명칭이 등장하지만 이는 관행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남경이란 명칭은 고려 문종, 숙종 때 양주(楊州)를 개칭한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며, 1308년(충선왕 복위년)에 한양부로 변경됐다. 이후 공민왕 대에 한양천도가 추진되며 ‘남경’으로 칭해지다가 다시 한양부로 변경된다(나각순 2002: 109-111). 따라서 조선개국 후에도 정식명칭은 ‘한양부’였다.

2 예를 들어, 역성혁명이 성공한 뒤, 왕조의 이름을 바꾸고자 청하는 국호개정부터 ‘朝鮮’, ‘和寧’ 중 어떤 것을 국호로 정할지 채택하는 것까지 전부 명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3 김사행(?~1938/여말선초의 고위 환관)은 원의 환관으로 북경에서 수학하였으며 고려 공민왕릉, 노국대장공주릉 등을 설계하고 조선에서는 경복궁과 흥천사, 문묘, 정릉의 축조에 관여했다. 김사행 사후, 진행되던 공사의 대부분을 박자청이 이어 받는다. 박자청(1357~1423/선공감, 공조판서, 판한성 부사를 역임한 조선 전기의 관료)은 한양도성 수축, 청계천 정비, 시전행랑 건설, 개성 경덕궁, 연희궁, 창덕궁, 모화루, 경회루, 개경사, 연경사, 성균관, 군자감, 제릉-건원릉-현릉 등 조선 전기의 주요시설물을 설계-건축하였다.

4 정도전, 권근 등의 저술에는 『주례』의 구절이 직접 인용되고 있으며 세종 때는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5 『周禮』 「考工記」 「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左祖右社，面朝後市。」

6 『동국여지비고』 한성부, 장시(場市) “세상에 전하기를, 신무문(神武門)밖 북쪽에 예전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는 주례의 후시(後市)의 의미라고 하나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시전을 궁 남쪽으로 옮겨 개설하는 등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⁷

한편 한양도성의 축조에는 자연지리적인 요소도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 분지 내에도 고저차가 존재하는 지형 특성을 보인다. 이는 동시기 주변 국가들의 도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지적 특징이다.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선택하여 방형으로 외곽곽을 두르고 내부의 일정한 주축선을 기준 삼아 궁궐과 주요시설물을 배치하는 형태였다. 반면 전조(前朝) 고려의 개경성은 송악의 사면을 따라 4겹의 구조를 가진 외곽성을 두르고 특별한 주축선 없이 주요시설물을 배치한 형태였다. 궁장의 범위에 기준해서 보면 궁궐 전각의 배치도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특별한 주축선 없이 송악의 경사를 따라 만들어진 형태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데 한양도성의 입지적 특성이나 시설배치는 개경성과의 유사성이 간취되는 부분이 있다.

조선 초기 한양도성에는 흥천사, 원각사, 흥덕사 등 대형 사찰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유교국가의 수도에서 사찰이 주요 경관 요소로 기능한 것은 꽤나 이질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문화에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와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되는데 일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왕실에도 불교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김윤주 2017: 43). 아마도 이런 배경이 도성 내에 사찰 조성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조선 초기 한양도성에 축조된 대형 사찰들은 대부분 왕실 발원으로 건립되었는데 이것이 고려 개경성의 법왕사, 왕륜사, 보제사 등과 같이 정치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어진 것인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한편 유교가 조선에 뿌리를 내리며 예제시행을 위

한 제사시설도 도성에 들어서게 된다. 묘(廟)와 단(壇)뿐만 아니라 사(祠: 사당)도 그 수가 증가한다. 조선시대의 묘, 단, 사는 처음에는 도성 내부를 중심으로 조성되지만 이후 도성 안팎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태종 때에는 풍운뇌우단, 영성단, 우사단 등 15개 이상의 단이 만들어졌다. 임란 후에는 전사한 명군과 명의 병부상서를 위해 민충당과 선무사가 세워지고 도성의 남쪽과 북쪽에는 관왕묘도 만들어진다. 조선 중기 이후, 유교의 교조적인 성격이 강화되며 도성 안의 사묘는 급증하고 사찰수는 격감하는데 대체로 이 시기부터 도성 내부의 경관이 '유교국가'의 그것으로 완전하게 변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상해 2004: 137-139).

요약하자면 조선 초기 한양도성의 경관을 구성하던 주요 시설들은 유교적 원리에 기반하여 설계·배치되지만 도성의 경관에는 여전히 이질적인 요소들도 뒤섞여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한양도성을 축조하는데 관여한 인적자원들이 본질적으로 전조(前朝) 고려, 다시 말해 구체제의 사람들이었고 불교 역시 구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이자 신앙으로서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III. 정릉 이장과 광통교 개수의 실체

신덕왕후는 고려 말 지방군벌이었던 이성계의 경처이자 그를 중앙정치무대로 이끈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다. 신덕왕후의 집안인 신천 강씨는 아버지 강윤성과 그 형제들이 모두 충혜왕·공민왕 시기의 권문가였기 때문에 변방인이었던 이성계가 중앙정치무대에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신덕왕후의 숙부 강윤충은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의 형 이자흥의 사위였는데 이 인연이 계기가 되어 이성계와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덕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1396) 태조는 한양도

7 『동국여지비고』 한성부, 시전(市廛) “정종(定宗) 원년에 비로소 시전을 설치하니, 좌우 행랑(行廊) 8백여 칸이 혜정교(惠政橋)로부터 창덕궁 입구까지 이르렀다.”

성 안의 취현방(聚賢坊: 서울 중구 정동)에 신덕왕후의 무덤을 조성(1397)하지만⁸ 태종 집권 후, 무덤은 도성 밖으로 이장(1409)된다. 이 무덤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바로 그 정릉(貞陵: 사적 제208호)이다. 정릉은 조선왕조가 들어서고 처음 만들어진 왕릉으로 이때까지 조선 정부는 왕릉을 조영한 경험도 없었고 능묘제도 역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조선 당시의 정릉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전조(前朝) 고려의 현·정릉(공민왕릉과 노국대장공주릉)의 능제를 답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04). 태조는 정릉 공사를 준비하며 제주목사 여의손에게 명해 신장석을 비롯한 석물들을 당대 최고 수준으로 만들게 한다. 능의 설계는 고려의 현·정릉을 조영했던 김사행이 담당했다(김버들 외 2018: 115-117). 현·정릉 조성에 사용된 석물과 정릉(신덕왕후릉) 조성에 사용된 석물을 비교해 보면 금강령과 금강저 문양 등이 다채롭게 조각되어 있는 등 높은 유사성이 감지된다(사진 1-3). 능의 구조나 부속 시설의 배치가 어떠한 양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석물의 문양 등에서 간취되는 유사성은 특기할 만하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태조의 선조릉인 팔릉⁹에서도 고려 능묘제의 영향이 확인되는 것도 참고가 된다(전나나 2014: 336).

광통교는 ‘광통방(廣通坊)에 있는 큰 다리’라는 뜻의 대광통교(大廣通橋)가 본명이다.¹⁰ 왕도의 국문인 승례문에서 도성 내 최고 변화가인 운종가와 육조대로에 접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양에서 가장 큰 다리이기도 했다. 광통교가 언제 처음 조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태조 대의 기록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 한양도성건설 당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 시기에도 한양이 남경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청계천을 포함한 도성 내의 여러 하천에 다리가 존재하고 있었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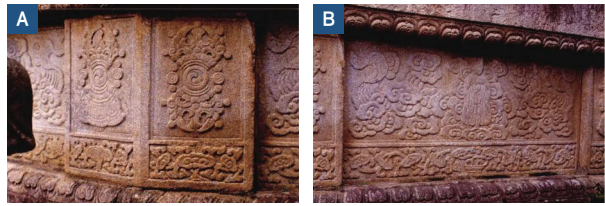


사진 1 현·정릉의 우석(A)과 병풍석(B)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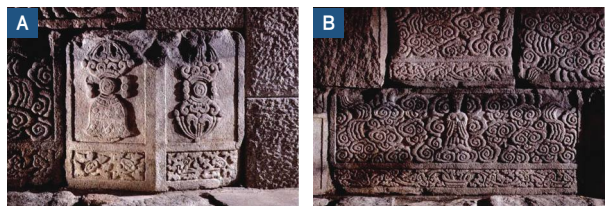


사진 2 청계천 광통교 교대에 남아있는 정릉의 우석(A)과 병풍석(B)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사진 3 현릉의 장명등(A)과 신덕왕후릉의 장명등(B)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능성도 있다. 자연하천이었던 청계천은 범람이 잦아 호우 때 마다 도성에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조선왕조 내내 치수의 대상이었다. 태종은 도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06년부터 도성 내 하천을 정비하고 양안에 독을 쌓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1411년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해 청계천과 주변 운종가에 대한 정비도 병행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무너진 광통교의 흩다리를 돌다리로 바꾸는 보수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보이

8 신덕왕후의 능지로 처음에는 도성 바깥의 안암동(安巖洞)과 행주(幸州: 경기도 고양)가 저울질된다. 이 중 태조가 자신의 능지로 점지했던 안암동이 선택되어 공사가 시작되나 땅에서 물이 솟아 취소되고 취현방이 능지로 결정된다.
 9 태조의 선조를 가운데 고조까지 안장된 능으로 정릉(定陵), 화릉(和陵), 의릉(義陵), 순릉(純陵), 지릉(智陵), 숙릉(淑陵), 덕릉(德陵), 안릉(安陵)이며 팔능으로 지칭한다. 덕릉, 안릉은 고려 후기 현릉, 정릉(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릉)과 유사성을 보이며 정릉, 화릉도 이와 흡사하다.
 10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북광통교(北廣通橋), 대광교(大廣橋), 광교(廣橋)로도 기록되어 있다.



사진 4 복원된 광통교 (문화재청).

며 옛 정릉 터에 남아 있던 석물들이 공사 자재로 동원된 것이다.

정황상 태종이 계모이자 자신과 왕권을 다했던 방식

의 친모인 신덕왕후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을 개연성은 충분하다.¹¹ 하지만 야사의 내용은 당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 특정 개인의 감정에 대한 추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릉이나 광통교의 건립과 관련된 실록의 기록은 담백하다. 태조실록 17권(태종 9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丙申/遷葬神德王后 康氏于沙乙閑之麓。初, 命議政府, 議遷貞陵于都城之外可否, 議政府上言: “古之帝王陵墳, 皆在都城之外。今貞陵在乎城內, 未便, 且近於使臣之館, 乞遷于外”(표 1의 34). 즉, 정릉의 이장은 능묘가 도심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사신의 관사와 가깝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는 의정부의 상언에 따랐던 것이다.

표 1 태조-태종 연간 신덕왕후(정릉) 관련 실록 기록

순번	실록 기록	내용
1	태조실록 1권, 1년 8월 7일	강씨를 왕비로 정하고 현비(顯妃)라 하다.
2	태조실록 2권, 1년 윤12월 19일	임금이 현비와 더불어 의화 궁주 안씨의 사제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3	태조실록 2권, 1년 윤12월 27일	임금이 현비와 더불어 수창궁(壽昌宮)으로 거둥하였다.
4	태조실록 3권, 2년 3월 13일	도평의사사에서 황비(皇妃) 의비(懿妃)의 3대(代)와 중궁(中宮) 현비(顯妃)의 3대(代)를 봉증(封贈)하기를 청하니, 이를 유허하였다.
5	태조실록 3권, 2년 6월 14일	현비의 생신이므로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용서하였다.
6	태조실록 4권, 2년 9월 21일	현비의 본향인 곡주(谷州)를 승격시켜 곡산부(谷山府)로 삼았다.
7	태조실록 7권, 4년 6월 14일	현비의 생일이므로 서울과 지방의 이죄(二罪) 이하 죄수는 석방하였다
8	태조실록 8권, 4년 7월 12일	왕이 현비가 평안하지 못하여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에게 기도하게 하고, 중외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는 석방하게 하였다.
9	태조실록 8권, 4년 9월 9일	현비가 새 대궐 후청에 나가 역승과 여러 목공·석공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10	태조실록 9권, 5년 1월 20일	임금이 현비와 함께 유후사에서 거둥하였다.
11	태조실록 9권, 5년 2월 9일	임금이 현비와 함께 관음굴(觀音窟)에 거둥하여 부처에게 재를 올리고, 이튿날 돌아왔다.
12	태조실록 9권, 5년 2월 22일	임금이 현비와 함께 유후사에서 돌아왔다.
13	태조실록 9권, 5년 6월 26일	임금이 현비의 병환으로 구궁(舊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
14	태조실록 10권, 5년 7월 1일	현비가 병환이 나아졌으므로 중 50명을 내전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었다.
15	태조실록 10권, 5년 7월 7일	현비의 병환을 위하여 중들을 내전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고, 사신을 회암사에 보내어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소격전(昭格殿)에 초제(醮祭)를 거행하고 중외의 이죄(二罪)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16	태조실록 10권, 5년 8월 9일	현비의 병환이 위독하여 판내시부사 이득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17	태조실록 10권, 5년 8월 12일	현비의 병환이 위독하여 임금이 이득분의 집에 거둥하였다.
18	태조실록 10권, 5년 8월 13일	밤에 현비가 이득분의 집에서 흥(薨)하였다. 임금이 통곡하고 슬퍼하기를 마지않았으며, 조화와 저자를 10일간 정지하였다.
19	태조실록 10권, 5년 8월 16일	조준 등의 건의로 공신 이서로 하여금 3년 동안 왕비의 능을 지키게 하다 / 공신수릉제를 항식(恒式)으로 함.
20	태조실록 10권, 5년 8월 28일	봉상사에서 현비의 존호와 정회계의 시호를 올린다.

11 신덕왕후 사후 태조 대에는 공신이 3년간 능을 지키게 했는데 이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예우이다. 태종대 이장 후에도 2품관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으나 태종 12년 3품관으로 하여금 대압문(代押文)을 가지고 제제하도록 한 것은 신덕왕후에 대한 예우를 깎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순번	실록 기록	내용
21	태조실록 10권, 5년 9월 28일	봉상사에서 현비의 존호를 신덕왕후(神德王后), 정릉이라 의논해서 올렸다.
22	태조실록 10권, 5년 10월 10일	좌정승 조준과 판중추원사 이근에게 명하여 신덕왕후의 사책을 올리게 하였다.
23	태조실록 11권, 6년 1월 1일	눈비가 내렸다. 백관을 거느리고 제정을 하례하고 조하는 반지 아니하였다. 백관이 신덕왕후 빈전에 요전(澆奠)을 드렸다.
24	태조실록 11권, 6년 1월 3일	신덕왕후를 장례 지내고 정릉이라 이름하다. 인안전에 반혼하고 혼전도감을 설치하다.
25	태조실록 11권, 6년 3월 4일	경천사에 거동하여 화엄 법석을 베풀어 신덕왕후의 영을 위로하였다.
26	태조실록 11권, 6년 3월 16일	상의중추원사 유운을 명에 보내어 현비 상사에 황제가 조의를 보내 사의를 표하다.
27	태조실록 14권, 7년 8월 2일	신덕왕후의 영자(影子)를 인안전에 봉안하였다.
28	태조실록 14권, 7년 8월 9일	흥천사에 거동하여 신덕왕후를 위해서 올리는 불공을 관람하다.
29	태조실록 14권, 7년 8월 13일	신덕왕후의 대상재를 흥천사에서 베풀고 도당에서는 흥복사에서 별도로 행하였다.
30	태조실록 15권, 7년 9월 7일	신덕왕후의 영정(影幀)을 정릉으로 옮겨 봉안하게 하였다.
31	정종실록 1권, 1년 3월 7일	유후사로 환도하니, 공후는 모두 따르고, 각사에서는 반씩만 따랐다. 태상왕이 거기를 움직이니, 회안군(懷安君)과 각사 관원 한 사람씩이 따랐는데, 길이 정릉을 지나니, 두루 살펴보고 머뭇거리면서 또 말하기를, “처음에 한양으로 옮긴 것은 오로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과 의논한 것이었다.”하고, 눈물을 흘렸다.
32	정종실록 2권, 1년 8월 12일	신덕왕후의 기일재를 흥천사에서 베풀었다. 이날에 태상왕이 광명사에 거동하여 따로 기일재를 베풀었다.
33	태종실록 2권, 1년 8월 15일	임금이 태상전에 조회하였으니, 현수하고자 함이었다. 태상왕이 신덕왕후 휘월(諱月)이라 하여 정지시키었다.
34	태종실록 17권, 9년 2월 23일	신덕왕후 강씨를 사울한의 산기슭으로 천장하였다. 의정부에 명하여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는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옛 제왕의 능묘가 모두 도성 밖에 있는데, 지금 정릉이 성안에 있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또 사신이 묵는 관사에 가까우니, 밖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각사에 명하여 반을 나누어 백의·흑각대·오시모 차림으로 시위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건대, 송나라 선조의 안릉을 하남 공현으로 옮긴 뒤에 조석전과 삭망제는 없었고, 다만 춘추 중월에 제사를 행하였을 뿐이니, 이제부터 신덕왕후의 산릉 제례도 이러한 예에 의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주공이 모든 제사에 질서를 지키고 문란하게 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춘추의 두 중월과 유명일(有名日)에 2품관(品官)을 보내어 제사지내도록 하되, 향식(恒式)을 삼으라.”
35	태종실록 17권, 9년 4월 13일	태평관(太平館) 복무를 새로 지었다. 임금이 이귀령에게 일렀다. “참찬은 태평관 감조 제조이니,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 3간을 짓고, 판의 구청을 가지고 동한·서한을 창건하면, 목석(木石)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업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 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樓閣)을 짓고, 동쪽·서쪽에 현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업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분은 자취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석인은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황희가 아뢰기를 ‘석인을 가지고 주초(柱礎)를 메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지 못하다.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36	태종실록 20, 10년 8월 8일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쳐서, 백성 가운데 빠져 죽은 자가 있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광통교의 흠다리가 비만 오면 곧 무너지니, 청컨대 정릉(貞陵) 구기(舊基)의 돌로 돌다리를 만드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37	태종실록 20권, 10년 8월 10일	신덕왕후 강씨의 기신(忌辰)에 정조(停朝)하는 것을 파하였다. 예조에서 구례에 의하여 신덕왕후 기신에 정조할 것을 아뢰니, 대언 등이 아뢰기를 ~ “신의왕후가 이미 부모(耐廟)되었고, 강씨는 정적이 아니오니, 그 기신에 정조시 ¹² 하여 후세의 의심을 열어놓을 것이 아닙니다.” ~ 하였다. 이에 정조하는 것을 파하였으나, 태조가 후하게 대하던 바였으므로 기신제제를 후하게 베풀도록 하였다.
38	태종실록 20권, 10년 8월 13일	정윤 이흥제를 보내어 신덕왕후의 기신제를 흥천사에서 행하였다.
39	태종실록 22권, 11년 8월 12일	여량군(驪良君)에게 명하여 승도 60여 명을 정릉 재궁에서 음식을 먹이었으니, 현비의 기신이기 때문이었다.
40	태종실록 23권, 12년 6월 29일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성복(成服)하다. - 대비의 흉한 것을 조정에 고부한다면, ‘형의 아내’라고 칭하거나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이 모두 미편하고, 또 신덕왕후 강씨의 상을 고부하지 않았으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지금도 또한 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
41	태종실록 24권, 12년 8월 10일	축문을 잘못 쓴 교서 정자 김상정을 순금사에 가두다 ~ 신덕왕후의 제문에는 국왕과 성을 쓰고, 정안왕후의 제문에는 단지 국왕만 썼으므로 주상께서 이를 보고 일정하지 못하다하여 이 같은 명이 있었다.
42	태종실록 24권, 12년 8월 23일	신덕왕후의 기신에 처음으로 대압문(代押文)을 가지고 제제를 행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과 《장자문집(張子文集)》을 상고하건대, ‘기일에 서모(庶母)와 수(嫂)를 위해서는 한결같이 불육(不肉)한다.’ 하였으니, 신덕왕후의 기신에는 이제부터 3품관으로 하여금 대압한 제문과 소문을 가지고 제제를 행하게 하소서.”
43	태종실록 32권, 16년 8월 21일	신덕왕후 및 성비가 계모인가 하는 문제를 신하들에게 묻다.~ “정릉이 내게 조금도 은의가 없었다. 내가 어머니 집에서 자라났고 장가를 들어서 따로 살았으니, 어찌 은의가 있겠는가? 다만 부왕이 애중하시던 의리를 생각하여 기신의 제제를 어머니와 다름없이 하는 것이다.”~

12 정조시(停朝市) : 나라에 큰 슬픔이 있거나 재변(災變)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근신(謹愼)하는 뜻으로 조회(朝會)를 보지 않고 저자에 문을 단던 일.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호우로 다리는 무너졌고 급히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정릉에 남아 있던 석재를 재활용한 것뿐이다. 정릉에 남아 있던 건축부재는 광통교 공사에 앞서 태평관 공사에 먼저 사용되기도 하였다(표 1의 35, 36). 물론 다른 석물을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을 굳이 정릉의 석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 하지만 광통교 개수를 위해 정릉을 격하시키고 이장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종이 신덕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다리 부재로 석물을 써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했다거나 석물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세워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 후대의 상상에서 탄생한 허구이다. 오히려 정릉의 이장은 관계된 법식을 철저히 준수하였으며 그 이후의 예(禮)도 『문헌통고』의 사례를 따랐다.

<표 1의 34, 37, 40, 42 43> 기사를 참고한다면 태종 즉위 후, 정릉에 대한 처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격으로 수렴되어 간 것이 맞다. 예를 들어 태종 9년(1409) 정릉을 사을한(沙乙閑)에 이장하고 제례의 격을 봄·가을에 지내는 중월제(中月祭)로 낮췄다던지 태종 12년(1412) 기제를 서모나 형수에게 지내는 기신제(忌辰祭) 격으로 다시 낮추어 3품관이 대입문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것은 태종이 신덕왕후에게 가졌던 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하지만 태종은 유교국가의 제왕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다분히 보인다. 가능한 전례를 충실히 추종하려 하였으며 정릉의 처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시키는 모양새를 갖춘다. 심지어 정릉의 격을 꾸준히 낮추어 가는 와중에도 후하게 제례를 치르도록 명하기도 했다(표 1의 37, 38, 39). 이것은 사초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질 본인의 결정이 정당

한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음을 알리고자 한 다분히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황희가 정릉의 석인을 건물주초로 쓰자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태종은 그 건의를 묵살(표 1의 35)하는데 이런 태종이, 본인의 사감이 숨김없이 드러나 후대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하였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이래 콘크리트 선로 아래 묻혀 있었던 광통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을 통해서이다. 청계천 복원을 위해 주변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과정에서 석축 광통교의 초축형태와 증축과정이 밝혀졌다. 태종 대에 조성된 광통교는 다리발을 2열 6횡(길이 12m×너비 11m)으로 배치했는데 이후, 증축과 확장을 거치며 오늘날의 2열 8횡(길이 13m×너비 15m)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서울특별시 2005: 43)¹³. 광통교의 교대에는 장방형으로 길다란 장대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곳에 사용한 석재들이 정릉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형태와 문양으로 미루어 정릉의 봉분을 감쌌던 호석(병풍석)으로 보여진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05).¹⁴ 광통교 교각에서는 3개의 각자석도 확인되었는데 ‘庚辰地平(1760)’, ‘癸巳更濬(1883)’, ‘己巳大濬(1869)’ 등 청계천 준설과 관련된 공사기년이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시대 순으로 새겨져 있었다(서울특별시 2005: 34).

그렇다면 광통교는 정릉의 석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거꾸로 세워 만들었을까? 결론적으로 정릉의 석물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거나 거꾸로 세운 정황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광통교의 석물은 적지 않게 손상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남아 있는 편이었다. 석재 중에는 재활용한 것으

13 조사단은 경진지평 시기, 준설토에 의해 높아진 주변 표고에 맞추어 교대와 교각을 높이는 방식으로 1차 증축이 이루어지고 이후 교량 서편으로 다리발 2열을 추가하며 평면 확장이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홍지윤 2010: 199).

14 다리의 난간석에도 정릉의 난간석(둘레석)을 재활용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장된 정릉은 병풍석과 난간석이 모두 없는 민묘의 형태인데 왕릉급으로 조성된 정릉의 격을 감안하면 난간석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이장을 위해 능묘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어디론가 난간석이 반출되었을 것이다. 광통교는 조선시대 한양의 교각 중 드물게 난간석이 설치된 다리이고 실제로 정릉의 석물이 교대를 쌓는데 활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정릉과 높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고려 현 정릉의 난간석을 보면 현 광통교의 난간석과 다른 형태이다. 광통교가 두 차례에 걸쳐 개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난간석이 해체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사진 5 광통교 초축 교대 축조 양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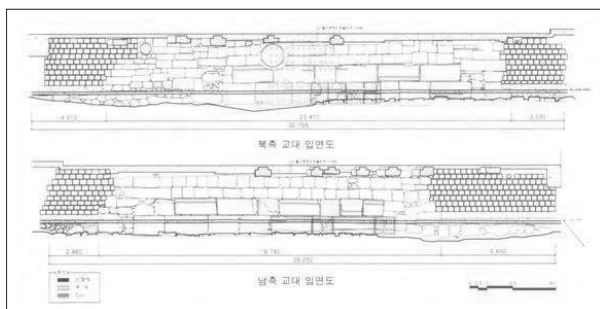


그림 1 광통교 남북 교대 입면도 (서울특별시 2005).

로 보여지는 부재가 다수지만 모두 정릉에서 반출된 것도 아니었다(홍지윤 2010: 189). 장식문양이 남아 있거나 형태적 특징이 정릉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는 교대석 및 지대석, 바닥박석, 명에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관찰된다. 이 가운데 교대석에는 정릉의 병풍석과 우석이 재활용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북측 교대의 경우, 하부 1단과 2단에 병풍석 6개와 우석 4개가 쓰였다(서울특별시 2005: 54).¹⁵ 여기에 쓰인 병풍석을 살펴보면 신장(神將) 주변으로 운문과 당초문이 조각되어 있는데 신장은 바로 서 있는 것도, 뒤집혀 있는 것도 있었다. 금강령과 금강저가 새겨진 우석도 마찬가지로 있다. 바로 서 있는 것도 옆으로 눕혀진 것도 거꾸로 세워진 것도 있었다. 잔존 양상을 통해 판단한다면 ‘저주’를 위해 의도적으로 거꾸로 쌓은 것이 아니라 석재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조립에 용이한 방향으로 쌓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사진 1, 5, 그림 1).

그렇다면 광통교 보수공사에 왜 정릉의 석물이 활용되었을까? 당시 한양도성 안팎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던 빈번한 토목공사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이래 궁궐과 성곽, 종묘, 사직 등 도성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들이 마련되었지만 도성이 완전한 모습으로 기능할 정도는 아니었다. 태조는 정종에게 왕위를 양위하지만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함에 따라 한양은 방치되고 사실상 도성정비와 성곽 수복이 중지된다. 태종이 새로이 즉위하고 한양으로 환도(1405)하며 청계천 정비를 포함한 도성정비사업은 대대적으로 재개된다. 태종 10년(1410) 큰 비가 내려 광통교의 흠다리가 유실되자 정릉의 옛터에 남은 돌을 사용하여 석교로 고쳐 짓게 한다. 이 공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태종실록 12년 2월의 기사에는 “하천을 파는 역사가 끝났다. 장의동 어귀로부터 종묘동 어귀까지 문소전과 창덕궁의 문 앞을 모두 돌로 쌓고,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광통교와 혜정 및 정선방 동구, 신화방 동구 등의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사를 통해 개거도감 설치(1411)를 전후하여 광통교 뿐만 아니라 도성 내의 하천과 교량 전반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었고 많은 공역이 투입되었던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태종 때에는 단순히 하천 정비만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회암사를 중수(태종 2년)하고 창덕궁을 새로이 짓고(태종 5년) 종로 인근에 행랑을 조성하였으며 창덕궁 문밖으로도 새로이 행랑(태종 12년)을 만든다. 명나라 사신을 위해 모화루를 짓고 새로이 연못을 파고(태종 7-8년) 종묘 정전을 증축하고 가산을 조성(태종 10년~11년)하였으며 이외에도 추동의 마구공사(태종 3년), 산릉역사(태종 8년) 등 도성 내·외부에서 끊임없이 공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에 평양성 축성을 비롯하여 서북면에 대대적인 축성 작업도 병행되었다. 신하들도 계속적인 토목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인식

15 홍지윤(2010)은 광통교 발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교대의 1~2단을 초축 교대로 보았다. 잔존 양상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초축 교대 조성에 사용된 석재들은 대체로 정릉에서 가져온 석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목 공납에 어려움이 있으니 공사를 정지(태종 6년)하자거나 육지의 축성공사를 중지하자는 상소(태종 11년) 따위를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광통교 보수와 청계천 정비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연이은 공사로 도성 내의 자재소요가 급증하고 있던 상태였다. 사실 공사에 앞서 자재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록이나 의궤의 기록을 보면 큰 공사에 착수하기 몇 해 전부터 목재나 석재 등 자재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태조가 한양성곽을 처음 축성할 당시, 석재조달 문제에 직면하여 사대부들에게 의무적인 상납을 독려하는 등 노력했으나, 결국 초축 한양도성의 7할이 토성으로 구축된 것을 보면 자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통교 같은 커다란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커다란 석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당시 청계천에 놓인 주요 교량들도 모두 석교로 개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통교에 사용할 만한 석재를 조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특히나 광통교 같은 중요 교량의 수리는 시급을 요하는 건이었을 것이다. 전술했다시피 정릉은 태조의 명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석물로 꾸며졌다. 당연히 정릉에 쓰였던 석재들은 부재로 활용하기 좋은 석물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공사의 시급성, 자재조달의 용이함을 고려할 때, 정릉에 남아 있는 부재를 재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석재 등 건축부재를 재활용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흔히 행해지던 일이었다. 성곽이나 궁궐, 무덤 등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를 위해 폐기된 석재를 재활용한다거나 심지어 멀쩡한 건물을 해체한 사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¹⁶ 광통교 보수공사가 마무리 된 이듬해, 하윤 등이 주창해 경성

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태종 13년)하여 성곽 보수를 추진한다. 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태종과 나머지 신하들이 공사를 중지시킨 것만 보아도 광통교 보수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V. 태조와 태종의 관념체계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립

필자는 정릉이 도성 안에 조성되었다가 다시 도성 바깥으로 이장된 원인을 태조와 태종이 가졌던 사상적 배경의 차이, 다시 말해 관념체계의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는 원의 다루가치 집안에서 태어나 변방에서 오랜 기간 무장으로 생활했다. 상대적으로 아들인 태종에 비해 유학에 대한 소양이 그리 깊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실록의 기록을 신뢰한다면 태조는 신덕왕후 강씨에게 정치적 동반자를 넘어 각별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다. 태조는 병상의 왕비를 위해 죄수를 석방하고 부처님께 제를 올리기까지 하였으며 강씨의 고향을 승격시키고 사후에는 조회를 10일간 중지하기까지 한다. 1396년 왕후가 사망하자 도성 내에 정릉을 조성하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빈번하게 정릉에 거동(舉動)했다. 유교국가의 제왕이 죽은 부인을 위해 도성 내에 원찰(願刹)을 세우고 대신들의 헌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며 공신에게 3년간 능을 지키게 하는 공신수릉제(功臣守陵制)를 채용하기까지 한다(표 1의 1-30).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왕정 내에 무덤을 조성하는 것이 피해야 하는 일임을 태조가 몰랐을까? 불교의 힘을 빌어 도성 내에 무덤과 사찰을 만듦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죽은 왕비의 권위를 제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

16 무덤의 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행위였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1674년 승능(현종릉) 조성 시, 영릉(효종릉)의 석물을 사용하는데 승종은 승시열의 의견을 받아들여 비용 및 노력 절감을 위해 석물의 크기를 대규모 축소하는 석물 간소화도 시행한다(김민규 2012: 63).



사진 6 이성계 발원 사리갓춤 중 은제 도금 라마탑형 사리기 (필자 촬영).

다(윤정 2009: 179-184).¹⁷ 이러한 발상은 변방에서 무인으로 성장한 이성계의 관념체계가 유교보다는 전통 신앙인 불교에 가까웠으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를 지지했던 세력의 한축이 불교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성계 발원 사리갓춤(보물 제1925호)’¹⁸은 이성계와 그 지지세력의 친불교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사진 6).¹⁹ 이 사리갓춤은 조선 건국 직전인 1390년에서 1391년 사이에 발원된 것으로 주요 발원자는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이며 이성계와 가까운 사이였던 승려 월암과 이후, 조선개국공신능권을 받는 황희석, 홍영통, 심릉, 박자청 등도 발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릉은 사리구 제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박자청은 한양성곽수축, 창덕궁 건설, 청계천 정비 등 도성정비와 관련된 수많은 공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사리구에는 이성계와 그의 지지세력들이 사리장엄의 공덕으로 미륵을 만나고 새 세상을

건설하기를 바라는 기원문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는 고달픈 민중들 사이에서 불교의 매향 의례가 크게 유행했는데 이는 미륵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주경미 2008: 44-46, 55). 이 사리갓춤은 독실한 불신자였던 이성계와 신덕왕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던 세력의 상당수도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반면 태종 이방원은 고려 말 과거시험에도 급제했던 엘리트 유생이었으며 주자학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²⁰ 이성계 본인이 세습을 통해 벼슬에 올랐고 친척들도 음서로 관직에 오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과거를 통해 벼슬에 오른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특기할만한 일이었던 것 같다. 여하간에 뛰어난 유생이기도 했던 태종은 아버지에 비해 유교국가에서 도성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삼국시대 이후, 율령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립된 이래로 도성 바깥에 무덤을 만드는 경외매장(京外埋葬)의 원칙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져 왔다. 정릉은 태조 개인의 강한 의지로 도성 안에 조성되지만 왕 이전에 유학자였던 태종에게 이와 같은 결정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한양을 유교의 이상향으로 만들고자 했고 전국적으로도 사찰의 축소, 경제적 기반 박탈 등 척불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조선 초기 한양에는 유교와 불교의 공간이 공존

17 태조는 원래 자신의 능지로 점지했던 안암동에 신덕왕후의 능을 만들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본인과 왕비의 무덤을 하나의 능역으로 조성하려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능역 공사 도중, 안암동 능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빌미삼아 급하게 도성 안의 취현방으로 능지를 변경한다. 이러한 태조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사후에 강씨와 함께 도성 안에 묻히기를 계획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윤정 2009: 163).

18 1932년 금강산 월출봉의 석함에서 발견되었다. 2개의 탑형 사리장엄구와 동제발 1점, 은기 3점, 백자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 중에는 명문이 기록된 것도 있는데 제작 연대, 봉헌 목적, 발원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유교국가인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19 물론 이성계의 지지세력에는 친불파 뿐만 아니라 여말의 신진사대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선 개국의 중심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전 같은 이들도. 이들은 고려의 통치 질서를 부인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공양왕 3년 과전법을 반포하고 척불론을 제창한다. 이는 고려 왕조의 사상 체계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다(김당택 2010).

20 『高麗史』世家 우왕 9년 4월 「取及第金漢老等, 我太宗擢丙科第七人 : 과거에서 김한로 등을 급제시켰는데 우리 태종이 병과(丙科)에서 7등으로 뽑혔다.」



하고 있었다. 태조가 도성 안에 흥천사, 지천사, 흥복사, 흥덕사 등 4개의 사찰을 연이어 건립한 것이다. 특히 흥천사는 정릉을 조성하고 신덕왕후를 위해 지은 원찰이었다. 왕이 도성 안에 능묘를 조성하고 사찰을 세웠다는 것은 유교국가였던 조선의 국시(國是)에 지극히 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태조 생전에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태종의 시대가 열린 뒤, 조정의 유학자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태종 본인도 태조가 진행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유교적 관점에서 부적절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태종이 부단히 불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했던 사실은 이미 조남욱(2010: 143-150)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태종은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 ‘혹세무민’, ‘허탄함’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불사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자기의 본의와 다른 것’이라 하며 일정한 간극을 두었다. 왕비였던 원경왕후의 치병·연명을 위한 정근제를 열면서도 승려들을 겁박하여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하는 여러모로 조선 건국기의 신진사대부들이 불교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²¹ 다만 불교가 신앙으로서 지배 계층 뿐 아니라 민간에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교 세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노골적인 제한을 두지는 않았던 것 같다.²²

하지만 정릉의 경우는 이와 달랐을 것이다. 도성 바깥으로 무덤을 조성하는 원칙이 세워진 것은 꽤나 오래전 일로 수(隨)나라 시기의 기록이 가장 이르지만 이미 그 이

전부터 폭넓게 수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³ 당시의 유교 예법이 기록된 예의지(禮儀志)에서 이미 경외매장이 언급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태종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유교적 원칙을 거스르는 경내매장은 더 엄중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태종 시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한양도성의 정비과정에는 ‘예치(禮治)’를 강조하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도시 경관에 명확하게 현시하고자 했던 태종의 의지가 깃들여 있다. 정릉의 이장은 유교적 이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던 한양도성의 정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V. 맺음말

한양도성은 성리학자들에 의해 ‘예치’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현시하고자 구상되고 만들어졌다.²⁴ 하지만 실제 도시로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현실 문제와의 지난한 충돌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양도성이 만들어진 조선 초기는 고려 말의 사회적 혼란상을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유교를 토대로 정비해 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기성질서와 새로운 헤게모니가 부딪히며 뒤섞여 가는 과정이었다고 정의된다. 시대 정황은 도성과 주요 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해 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도성의 기본 골격은 유교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구상되지만 실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그러하지 못했다.

본고는 조선 초기 한양도성의 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의 하나로 신구(新舊) 지배 이데올로기의 충

21 태종은 왕조의 건국기에 본인이 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정책적으로 송유역불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를 탄압하거나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사회전반에서 불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태종은 자신과 직결된 불사는 엄정히 거부하였으나 태조나 신덕왕후의 제를 불당에서 올리기도 하였고 왕비의 치유를 빌기도 하였다.

22 태종 즉위 후, 태상왕으로 있던 이성계는 말년에 거의 불가에 귀의하다시피 한 삶을 살았으며 불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당시 불교 교단을 정리하지는 사헌부의 건의가 있었으나 태상왕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태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김윤주 2017: 53; 조남욱 2010: 153).

23 경외매장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수서(隋書)』 卷8 禮儀志 “左京師葬者 去城七里外”로 당시 경외매장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山本孝文 2008: 180).

24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진 한양도성을 일컬어 ‘으뜸가는 선’이라는 의미의 ‘수선(首善)’으로 칭하기도 했다. 정도전의 시(詩) ‘신도팔경(新都八景)’에도 조선의 건국자들이 꿈꿨던 한양도성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둘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건을 제시하였다. 정릉 이장과 광통교 개수에 얽힌 이야기에는 조선 초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통해 등극한 유교국가의 통치자였으나 배우자이자 정치적 동반자였던 신덕왕후를 위해 도성 내에 원찰인 홍천사와 무덤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불교의 힘을 빌려 죽은 왕비의 권위를 위외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세자로 삼은 방식을 지키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시를 거스르는 태조의 결정에도 조정의 대신들은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신수릉제를 항식(恒式)하고 원찰인 홍천사를 사치스럽게 조성하는데 일조한다.

태종이 즉위한 뒤, 상황은 급변한다. 의정부의 상소를 받아들여 정릉의 조역(兆域)을 축소한다. 태조가 봉어한 뒤에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경외매장의 원칙을 어긴 정릉을 해체하고 도성 바깥으로 이장시킨다. 정릉에 대한 제례도 점진적으로 격을 낮춘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는 계모인 신덕왕후에 대한 태종의 사감도 녹아 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유학자로서 도성 경관을 정비해 가고 있던 의증이 반영된 것이다.

태종 시기 한양도성의 경관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태조에서 정종을 거치며 멈추었던 도성정비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창덕궁, 종묘 등 주요시설물들에 대한 개·증축, 도성 내 하천과 가로망에 대한 정비, 운중가와 돈화문 주변 행랑의 확장, 도성 성곽에 대한 대대적인 수축 등이 진행된다. 이 와중에 호우를 맞아 도성에서 가장 큰 다리였던 광통교가 무너지고 도성 안팎에서 이어지는 공사들로 자재소요가 급증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릉에 버려져 있던 석물들이 교량 보수공사의 자재로 재활용된다. 야사에서는 신덕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태종이 의도적으로 정릉의 석물을 교량 보수에 사용하였다고 전하지만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 설득력 없는 이야기이다.

신덕왕후릉의 축조와 이장, 그리고 광통교 개수에 얽힌 사건들은 개인의 사감에서 비롯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여말선초의 관념체계를 지배하고 있던 불교 중심의 기성질서와 새로운 예치국가를 목표로했던 유교 이데올로기 사이의 헤게모니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 국역(<http://db.history.go.kr/KOREA>.)
- 『조선왕조실록』 국역(<http://sillok.history.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I』
- 서울특별시, 2005, 『청계천 발굴유적 실측 및 설계보고서 : 광통교 실측조사보고서 I』
- 김당택, 2010, 「이성계의 즉위와 공양왕」, 『역사학연구』 38권
- 김동실, 2008, 「서울의 지형적 배경과 도시화 양상」,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수, 2010, 「조선초기 한성부의 성립과 도시기능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2017, 『서울의 다섯 궁궐과 그 앞길』, 집
-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건축』, 시공사
- 김민규, 2012, 「朝鮮 王陵 長明燈 研究」, 『미술사학연구』 274권
- 김버들·조정식, 2018, 「왕릉건축을 통해 본 박자청(朴子靑)의 김사행(金師幸)건축 계승」, 『건축역사연구』 27권 2호
- 김응호, 2008, 「조선 태조대 단묘의 건립과 운용」, 『인천학연구』 8권
- 김윤주, 2017, 「조선 초기 수도 한양의 불교 사찰 건립과 불사 개설 : 태조 이성계의 사찰 건립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6호
- 나각순, 2002, 「高麗末 南京復置와 漢陽遷都」, 『강원사학』 18권
- 이상해, 2004, 『궁궐·유교건축』, 솔
- 윤 정, 2009, 「太祖代 貞陵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37권
- 전나나, 2014, 「근대 사진으로 본 조선 초기 왕릉의 원형」, 『조선시대사학보』 69권
- 조남욱, 2010, 「조선 태종의 탈불교의식과 그 한계」, 『동양철학연구』 63권
- 주경미, 2008, 「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57호
- 최중현, 2008, 「朝鮮朝 漢陽遷都時 儒·佛 合意 背景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권4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홍지윤, 2010, 「淸溪川遺蹟으로 본 朝鮮時代 都城變遷」, 『숭실사학』 24권
- 황인규, 2001, 「고려말 李成桂의 불교계 세력기반」, 『한국불교학』 28권
- 山本孝文, 2008, 「葬墓制度의 定着過程」, 『전국역사학대회 51회 고고학부 발표자료집-무덤연구의 새로운 시각-』

Collision of New and Old Control Ideologies, Witnessed through the Moving of Jeong-regun (Tomb of Queen Sindeok) and Repair of Gwangtong-gyo

Hohyun Nam Gangwh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m00nrabit@korea.kr

Abstract

The dispute involving the construction of the Tomb of Queen Sindeok (hereinafter “Jeongreung”), King Taejo’s wife in Seoul, and the moving of that tomb, represents the most clearly demonstrated case for the collision of new and old ideologies between political powers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Jeongreung, the tomb of Queen Sindeok from the Kang Clan, was built inside the capital fortress, but in 1409, King Taejong forced the tomb to be moved outside the capital, and the stone relics remaining at the original location were used to build the stone bridge, Gwangtong-gyo. In an unofficial story, King Taejong moved the tomb outside the capital and used the stone items there to make the Cheonggyecheon Gwang-gyo so that the people would step upon the area in order to curse Lady Kang. In the final year of King Taejo, Lady Kang and King Taejong were in a politically conflictual relationship, but they were close to being political partners until King Taejo became the king. Sillok records pertaining to the establishment of Jeongreung or Gwangtong-gyo in fact state things more plainly, indicating that the moving of Jeongreung was a result of following the sangeon (a written statement to the king) of Uijeongbu (the highest administrative agency in Joseon), which stated that having the tomb of a king or queen in the capital was inappropriate, and since it was close to the official quarter of envoys, it had to be moved. The assertion that it was aimed at degrading Jeongreung in order to repair Gwangtong-gyo thus does not reflect the factual relationship.

This article presents the possibility that the use of stone items from Jeongreung to repair Gwangtong-gyo reflected an emerging need for efficient material procurement that accompanied a drastic increase in demand for materials required in civil works both in- and outside the capital. The cause for constructing Jeongreung within the capital and the cause of moving the tomb outside the capital would therefore be attributable to the heterogeneity of the ideological backgrounds of King Taejo and King Taejong.

King Taejo was the ruler of the Confucius state, as he reigned through the Yeokseong Revolution, but he constructed the tomb and Hongcheon-sa, the temple in the capital for his wife Queen Sindeok. In this respect, it is considered that, with the power of Buddhism, there was an attempt to rally supporters and gather the force needed to establish the authority of Queen Sindeok. Yi Seong-gye, who was raised in the Dorugachi clan of Yuan, lived as a military man in the border area, and so he would not have ha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in Confucian scholarship. Rather, he was a man of the old system with its ‘Buddhist’ tendency. On the other hand, King Taejong Yi Bang-won was an elite Confucian student who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at the end of the Goryeo era,



and he is also known to have held a profound understanding of Neo-Confucianism. To state it differently, it would be reasonable to say that the understanding of symbolic implications for the capital would be more profound in a Confucian state. Since the national system that was ruled by laws had been established following the Three-Kingdom era, the principle of burial outside of the capital that would have seen a grave constructed o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was not upheld, without exception. Jeongreung was built inside the capital due to the strong individual desire of King Taejo, but since he was a Confucian scholar prior to becoming king, it would not have been accepted as desirable. After taking the throne, King Taejong took the initiative to begin overhauling the capital in order to reflect his intent to clearly realize Confucian ideology emphasizing ‘Yechi’ (“ruling with good manners”) with the scenic view of the Capital’s Hanyang ri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clude accordingly that the moving of Jeongreung was undertaken in the context of such a historic background.

Keywords Joseon, King Taejo, King Taejong, Gwangtong-gyo, Tomb of Queen Sindeok

Received 2020. 09. 15 • Revised 2020. 10. 16 • Accepted 2020. 11. 05

